제1103회 주회 - RI3650지구 총재 이취임식

제1103회 주회가 국제로타리 3650지구 총재 이취임식으로 대체되어 지난 7월 1일(수) 11시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개최되었다. 제65대 김종문 총재의 이임식과 제66대 김진환 총재의 취임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로타리안 25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일년간의 임기를 마친 김종문 총재는 김진환 총재에게 국제로타리 3650지구기를 이양하였으며, 안은숙 회장은 서울회현로타리클럽 김형진 회장에게 총재 클럽기를 이양하였다. 김진환 총재는 취임사에서 "더 나은 세상을 향해 '진실과 공평', '선의와 우정', '섬김과 나눔'이라는 로타리의 핵심 가치를 회원들과 함께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 봉사 프로젝트 선언식도 함께 열렸다. 일년간의 임기를 훌륭히 마무리한 김종문 총재에게는 깜짝 순서를 통해 모든 로타리안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종문 총재 선물 전달식


참석한 회원들

제1103회 봉사주회 출석현황

회원수	출석수	Make-up	출석률
86	10	0	11.6%

- 집행부(1명) : 이두원
- 클럽관리위원회(3명) : 권보은,김종문,이무헌
- 멤버십위원회(1명) : 이순동
- 로타리재단위원회(0명)
- 봉사프로젝트위원회(2명) : 김연수,이상우
- 공공이미지위원회(3명) : 강미은,안은숙,이재찬

제1104회 주회 식순

- 일 시 2026년 7월 21일(화) 12시
- 장 소 서울클럽 2층 지리산룸

1. 개회선언 및 타종
2. 네가지 표준 제창
3. 로타리 노래 제창 (R-O-T-A-R-Y)
4. 생일축하
5. 성금동의
6. 연사소개 및 강연
   - 연사 : 이경률 연세대학교 총동문회장
   - 연제 : "제32대 총동문회 소개와 향후 운영 방안"
7. 사찰보고
8. 공지사항
9. 폐회선언 및 타종

생일회원(7월)

1일(음 5월 17일) 손양철, 3일(음 5월 19일) 전대윤,
19일 한용란, 24일 장소영, 30일 이찬희

연사소개

이 경 률



· 학력

1976~1979 신일고등학교 졸업
1979~1985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1989~199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석사
1992~1997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박사

· 경력

SCL그룹 회장 (2002~현재)
㈜SCL사이언스,SCL홀딩스,SCL헬스케어,(재)서울의과학연구소,
(의)하나로의료재단,바이오푸드랩,(주)메디인프라,(주)아헬즈,
(주)큐로직,리젠트파트너스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제31대,제32대"(2023~현재)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재단이사 (2024~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교실 교수 (1992~2002),
외래교수(현재)

· 수상

기획재정부 장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보건복지위원장 표창,
서울특별시장 표창, 몽골 대통령 북극성 훈장, 국가 브랜드 대상,
연세보건인상, 뉴욕헬스포럼"NYHF Health Equity Award", 몽골
대통령 친선훈장(2025 한-몽 수교 35주년), 몽골 과학아카데미 명예
박사 학위 수여

· 출판

"누가 코끼리를 보았는가?","우리는 행복을 진단한다", "ADVANCES
IN CLINICAL GENETICS"

제831호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Vol.32 No.1

CREATE LASTING IMPACT

Rotary

週報 毋岳

THE Seoul-Muak ROTARY CLUB BULLETIN

로타리의 목적 Object Of Rotary

로타리의 목적은 봉사의 이상을 모든 가치 있는 활동의 기초로 발전시키고 증진하는 것으로, 특히 다음을 북돋는 데 있다.

01 첫째, 사람 간의 교류를 봉사의 기회로서 넓히고 함양한다.
02 둘째, 사업과 직업에서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모든 유익한 직업의 가치를 인식하며, 로타리안 개개인의 직업을 사회에 봉사할 소중한 기회로 삼는다.
03 셋째, 로타리안 각자의 개인 생활, 직업 활동 및 사회 생활에서 봉사의 이상을 실천한다.
04 넷째, 봉사의 이상으로 맺어진 사업 및 직업인들의 범세계적인 우정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이해와 친선 그리고 평화를 증진한다.

네 가지 표준 The Four-Way Test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있어서
Of the things we think, say or do

01 진실한가?
Is it the TRUTH?
02 모두에게 공평한가?
Is it FAIR to all concerned?
03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Will it build GOODWILL and BETTER FRIENDSHIPS?
04 모두에게 유익한가?
Will it be BENEFICIAL to all concerned?

서울무악로타리클럽 제31대,제32대 회장 이,취임식 스케치



회장 이취임식

- 국제로타리 회장 올라잉카 하킴 바발롤라
- 클럽관리위원장 정재규
- 재 무 강성태
- 3650지구 총재 김진환
- 멤버십위원장 김유돈
- 총 무 고영섭
- 회 장 이두원
- 로타리재단위원장 유세현
- 부총무 유재연,서정수
- 클럽 트레이너(前 총재) 이순동
- 봉사프로젝트위원장 한용란
- 사 찰 강희주
- 차기회장 오기호
- 공공이미지위원장 문승헌
- 부사찰 이종수,박성근

국제로타리 3650지구 서울무악로타리클럽

· 창립 1995년 10월 27일 · R.I. 가입승인 1996년 1월 11일
· 창립회원 163명 · 주회 화요일 12시 서울클럽
· 클럽사무국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동문회관 4층

3650지구 7지역 7지역대표 : 김범준(서울한강)

서울무악로타리클럽 | 서울한강로타리클럽 | 서울장안로타리클럽 | 서울화산로타리클럽 | 서울호서로타리클럽
북서울로타리클럽 | 서울LINK로타리클럽 | 서울풍류로타리클럽 | 서울커리어로타리클럽 |
서울무악 아너스로타리위성클럽 | 서울무악 울타리로타리위성클럽 | 서울무악 주니어로타리위성클럽

■ TEL 02.393.0987 ■ FAX 02.393.0986 ■ E-mail smrc3650@hanmail.net ■ URL http://cafe.daum.net/muakrotary

제1101회 주회


로타리재단 기부증서 전달식

제1101회 주회가 지난 6월 9일(화) 12시 서울클럽 2층 지리산룸에서 안은숙 회장을 비롯하여 회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김지애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주회는 안은숙 회장의 개회선언 및 타종으로 시작되어 네가지 표준 낭독과 로타리 노래 제창에 이어 로타리재단 베네팩터(Benefactor) 기부에 동참한 김종문 총재에게 이순동 전 총재가 베네팩터 증서와 윙을 전달하며 뜻깊은 기부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김경수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부장을 초청하여 "시장을 이기는 다양한 투자전략과 타임폴리오 소개"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하였다. 연사는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 속 다양한 투자 전략과 자산운용의 방향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며 회원들과 활발한 질의응답을 이어갔고, 참석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사찰보고 순서에는 김성일 사찰대행이 박기호 회원의 특별성금 100만원을 포함하여 총142만원이 모금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서울무악로타리클럽 회장 이·취임식 및 차기 회기 연회비 납부 등이 공지되었으며, 안은숙 회장의 폐회 선언과 타종으로 제1101회 주회를 마무리하였다.

시장을 이기는 다양한 투자전략과 타임폴리오 소개


김경수 연사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핵심 경쟁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기간, 가장 큰 규모로 운용해 온 롱숏(Long-Short) 전략입니다. 최근에는 액티브 ETF 운용사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기반에는 오랜 기간 검증된 헤지펀드 운용 역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의 목적은 높은 수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며 꾸준한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타임폴리오는 2016년 자산운용사 전환 이후 미·중 무역 분쟁, 글로벌 긴축, 탄핵 정국 등 여러 위기 속에서도 연간 손실 없이 운용해 왔습니다. 코스피 변동성이 약 20%였던 기간 동안 펀드 변동성은 10.8% 수준으로 관리하면서도 연평균 18.6%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단기적으로 투자심리에 흔들리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실적에 수렴합니다. 타임폴리오는 시장의 과도한 기대와 우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격 차이를 활용합니다. 개인투자자가 감정에 따라 추격 매수와 손절을 반복하는 것과 달리, 기계적이고 객관적인 투자 원칙으로 종목을 교체하며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운용을 추구합니다.

롱숏 전략은 같은 산업 내 경쟁력을 비교해 우수한 기업은 매수(롱), 상대적으로 약한 기업은 공매도(숏)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HBM 시장을 주도하는 SK하이닉스를 롱으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삼성전자를 숏으로 편입하면 시장 방향과 관계없이 두 기업 간 성과 차이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운용 사례로는 미국 시장에서 급성장한 K-뷰티 기업,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 메모리 반도체 기업 등을 롱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글로벌 기업을 숏으로 운용하여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숏 전략은 수익 확대보다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보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타임폴리오의 경쟁력은 멀티 매니저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TMS(운용관리 시스템)에 있습니다. 약 20명의 전문 매니저가 독립적으로 운용하며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 자체 IT 시스템은 주문을 자동으로 최적화해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투자 상품은 사모 헤지펀드와 공모형 사모재간접펀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최소 가입금액이 3억~5억 원으로 제한되지만, 공모형 상품은 소액으로도 동일한 헤지펀드 전략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26년 국내 기업들의 이익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며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지만, 앞으로는 지수보다 실적이 우수한 기업 중심의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AI 시대의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투자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반도체 산업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주목하는 투자 분야는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관련 부품 ▲AI 전력 솔루션 ▲방산·우주항공 ▲K-소비재 및 유통 등 다섯 가지입니다. 다만 중동 정세와 미국 금리 등 불확실성도 존재하는 만큼, 상승과 하락 위험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롱숏 전략이 가장 효과적인 투자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자산을 지키며 키우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만약 하락 리스크를 감내하더라도 시장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알파 수익을 원하신다면, 저희 롱숏 유니버스 중 최우수 종목만 압축해 담은 타임폴리오 active ETF가 좋은 대안입니다. 하지만 고점에서 물려 스트레스받는 것이 싫고, 시장이 떨어지든 오르든 마음 편하게 안정적인 복리 효과를 누적하고 싶으시다면, 강력한 보험이 채워진 타임폴리오 헤지펀드가 가장 현명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변동성을 통제하는 타임폴리오의 철저한 롱숏 전략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려봤는데 좋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1101회 주회 출석현황

회원수	출석수	Make-up	출석률
89	18	21	43.8%

- 집행부(2명) : 안은숙,김지애
- 클럽관리위원회(2명) : 김종문,서정수
- 멤버십위원회(3명) : 김성일,박기호,이순동
- 재단위원회(1명) : 황성원
- 봉사프로젝트위원회(8명) : 고영섭,김선아,김성훈,김일윤,이두원,이상우,장진갑,한용란
- 공공이미지위원회(2명) : 이재찬,최진욱

- Make-Up(21명)
  - 2026 대만 세계대회(9명) : 고영섭,권보은,김성일,김연수,김종문,김지애,서정수,안은숙,이상우
  - 6월 월례회의(12명) : 강미은,고영섭,권보은,김성일,김종문,김지애,박찬복,이상우,이순동,이종수,정순훈,최진욱

제1101회 주회 성금 명단 (12명/142만원)

고영섭,김성일,김일윤,김종문,박기호,안은숙,이두원,이상우,이순동,이재찬,최진욱,황성원

제1102회 주회 - 서울무악로타리클럽 회장 이취임식

제1102회 주회를 겸한 제31대 안은숙 회장과 제32대 이두원 회장의 이·취임식이 지난 6월 23일 18시30분 서울클럽 2층 한라산룸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동건 전 국제로타리 회장과 김종문 국제로타리 3650지구 총재를 비롯해 이순동 전 총재,역대 회장 및 회원들이 함께하며 지난 회기를 돌아보고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안은숙 제31대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1년간 회원들과 함께한 30주년 기념행사, 구세군서울후생원 아동들과의 가을소풍, 장학사업,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다양한 문화·친목 프로그램과 지구 및 세계대회 참여 등을 회고하며, "회원들의 헌신과 따뜻한 우정이 있었기에 무사히 회장직을 마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한 사람의 회원으로서 서울무악로타리클럽의 발전과 봉사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제32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두원 회장은 연세대학교 동문이라는 특별한 인연과 로타리의'초아의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회기 클럽 슬로건인 'Meaningful Change with Good Influence(선한 영향력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를 발표하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회원 순증강 10%를 목표로 한 회원확대와 미래세대 육성, 더욱 수준 높은 주회와 지속가능한 봉사 프로젝트 추진,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클럽의 위상 제고를 핵심 목표로 제시하며, 회원 모두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사회와 국제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한 해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회장·총무 이임 감사장과 신임 임원 소개, 국제로타리3650지구 총재 표창 전달식이 함께 진행되었으며,서울무악로타리클럽은 지구 최우수클럽상,봉사프로젝트 최우수클럽상,로타리재단기여 최우수클럽상 등 다양한 클럽 표창을 수상하며 지난 회기의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김종문 총재에게 회원들의 마음을 담은 특별 표창인 '무악의 자랑상'을 전달하며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사찰성금으로는 이두원 신임회장의 150만원 특별성금을 포함하여 총 335만원이 모금되었다. 창립 31년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무악로타리클럽은 앞으로도 회원 간의 우정과 화합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국제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며, 로타리의 이상을 실현하는 모범적인 클럽으로 힘차게 도약해 나갈 예정이다.



클럽기 인수인계



전임 회장,총무 감사장 전달식



3650지구 총재 표창식



다함께 아카펠라

제1102회 주회 출석현황

회원수	출석수	Make-up	출석률
89	44	0	49.4%

- 집행부(2명) : 안은숙,김지애
- 클럽관리위원회(11명) : 강희주,고길석,권보은,김종문,박찬복,서정수,송재은,오기호,유성권,이무헌,정재규
- 멤버십위원회(7명) : 김상수,김성일,김유돈,김한샘,오현정,이순동,정신
- 로타리재단위원회(9명) : 강성태,김명진,박용근,유세현,유승흠,윤수아,이주호,조남준,황성원
- 봉사프로젝트위원회(9명) : 고영섭,김성훈,김일윤,박성근,박은혜,서지현,이두원,이상우,장진갑
- 공공이미지위원회(2명) : 이재찬,최진욱

- 게스트 : 이동건 전 RI회장, 주니어로타리위성클럽회(권창회,용환무,정우성,하현열), 서울무악로타렉트(임예나,이강준)

제1102회 주회 성금 명단 (34명/335만원)

강성태,강희주,고길석,고영섭,권보은,김상수,김성일,김유돈,김일윤,김종문,김지애,김한샘,박용근,박찬복,서지현,안은숙,오기호,오현정,유성권,유승흠,윤수아,이두원,이무헌,이상우,이상영,이순동,이재찬,이주호,이준구,정재규,조남준,한원일,황성원,황성택